

##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하루

강진호(마리아) 수녀/성바오로병원 호스피스 병동

“수녀님! 나 좀 빨리 하느님 품안에 불러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수녀님, 나는 더 살고 싶어요. 지금 죽기는 너무 억울해요. 꼭 살려 주셔야만 돼요” 하며 이품을 호소하는 양극단의 사람들을 만나며 하루가 시작된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은 꼭 가야만 하는 진리의 길이 있다면 그것은 죽음일 것이다. 세상 창조 이래 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나만은 이 진리의 길에서 먼 것처럼 너무나도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감히 생각지도 않은 때에 준비없이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게 된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다 보면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죽음을 만나게 된다. 성의 96년 겨울호 간호기획에 실린 글을 보면, 설문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대학생들과 일반인들에게 “호스피스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모른다는 대답이 대학생 46%, 일반인 72%의 통계가 나온 것을 보고 호스피스에 대한 교육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말기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총체적인 돌봄을 제공하며,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품안으로 돌아가도록 도와 주는 것이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우리 병동에 입원하시는 분들은 모두 6개월 이후에는 이 세상을 떠나실 분들이다. 가족들도 “어떻게 하면 잘해 줄 수 있을까?” 고심하며 순간 순간을 맞이한다.

우리 병동에서 호스피스 간호를 받기 위해 입원했던 한 환자의 아름다운 죽음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 분은 남편에 의해서 우리 병동에 입원을 하였다. 남편의 말이 부인은 호스피스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고 자신의 병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사랑하는 딸이 2명이며, 주위 친척은 물론 딸들에게도 차마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고 했다. 환자분과 대화를 하다보니 환자분은 계속 “나는 더 살아야 됩니다”, “지금 죽기는 너무 아까워요” 하며 자신의 현 상태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은 천주교 신자였지만 지금까지 냉담을 하다가 부인이 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부터 성당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부인에게는 신앙을 권유해서 예비자교리 교육을 받았다고 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영세식을 받으려고 했지만 받지 못하고 지금 입원을 하게 되었으니 입원을 하고 나면 영세식날은 꼭 외출을 시켜 달라고 청하였다.

우리 병원에서도 대세를 줄 수 있으니 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원목실에 알려 주겠다고 했으나 극구 사양하며 성당에 나가서 영세식을 받고 오겠다고 고집하였다. 외출

을 해서 영세를 받고 돌아오신 그분은 새 사람이 되어 있었다. 환자분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주님의 성령이 함께 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제 영세도 받고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주님께서 병을 꼭 낫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상스럽게도 영세식을 마치고 온 날은 진통제 없이도 하루를 지냈다.

이들이 지나자 통증이 다시 시작되었다. 의사가 회진을 오면 “선생님, 저 좀 꼭 살려주세요” 하며 통증을 호소해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했다. 주치의 선생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녀님! 이 사람은 진짜 호스피스 간호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며 참된 호스피스 간호를 청하기까지 했다. 정말 환자를 바라 볼 때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호스피스 간호를 시작해야 하나 앞길이 막막했다.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주님 도와 주십시오. 당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가족들을 도와 주십시오.’ 화살 기도가 저절로 흘러 나왔다. 우선 남편에게 부인의 병을 알리도록 하여 남은 삶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하도록 했다. 남편은 먼저 친정 어머님과 형제들에게 알려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청하며 화해의 시간을 갖도록 했다.

환자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병을 조금씩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남편은 가족, 친지들 모두에게 부인의 상황을 알렸지만 사랑하는 딸들에게는 도저히 말할 수가 없다고 하며 수녀인 나에게 엄마의 상황을 솔직히 얘기해 주기를 청했다. 그러던 어느날 그분의 딸들이 엄마 곁에서 밤샘을 했다고 하면서 오늘은 집에 가서 폭 쉬고 내일 오겠다고 하며 가방을 둘러 메고 간호사실로 나타났다. 그런데 예감이 이상했다. “얘들아! 나랑 얘기 좀 할까? 너희들 엄마와 하고 싶은 얘기 다했니?” 하니깐 “아니요, 다 못했어요” 대답을 했다. “그러면 너희들 오늘 집에 가지 말고 피곤해도 엄마 곁에서 하고 싶은 얘기 많이 많이 하거라” 하니깐 “우리 엄마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나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인다. “얘들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엄마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엄마 곁에서 함께 있도록 권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환자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모두 하라고 하니깐 환자분은 사랑하는 딸들에게 자기가 살아 있는 동안 신앙 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딸들에게 신앙 생활을 가르쳐 주지 못한 것이 가장 미안하다고 하며 이젠

아빠 따라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곳곳이 살아가도록 당부했다. 딸들은 고1, 고3이 되기 때문에 엄마의 마지막 말씀을 잘 알아들었다.

그날은 이상하게 신부님도 환자분을 방문해 주시고 원목실 수녀님, 가정간호 수녀님, 봉사자 자매님들도 함께 성가를 부르고 기도도 해 드렸다. 남편은 부인에게 “사랑해요, 여보” 하며 귤가에서 계속 속삭여 주었다. 환자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이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의 품안으로 인도되었다. 곁에서 지켜 보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분은 행복한 죽음을 맞이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든 주위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며 주님 품안으로 영원히 떠났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다 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동참하게 된다. 사람들의 모습이 각양 각색이듯이 죽는 모습도 참으로 다양하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듯이, 죽는 것도 우리 인간의 마음대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온전히 그 분의 뜻에 맡기며 하루 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삶의 철학을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배우게 되었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내게 해준 것이다’(마태 25, 40). 사람들은 젊었을 때는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지만 죽음에 직면했을 때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가 되는 것이 진리인 것 같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주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길임을 확신한다. 사랑의 용광로 속에서 자신을 온전히 투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청해 본다.

